

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



세종 특별자치시의의회

보도자료

제공일자	2026. 8. 25.(화)	사진 · 영상	사진(○), 영상(×)
보도일자	2026년 8월 25일(화)부터		
담당부서	의사입법담당관 정책팀	담당자	김인주 팀장(044-300-7321)
			유재한 주무관(044-300-7322)

안신일 세종시의의회 의장, 수도권 광역 의회 잇단 방문… 행정수도 완성 협력 요청

-수도권 3개 광역의회 참석으로 국민적 공감대 넓힌다-

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 안신일 의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수도권 광역의회에 공을 들이고 있다.

안 의장은 오는 31일 국회의원회당 앞에서 열리는 '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' 참석을 요청하기 위해,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를 잇달아 방문한 데 이어 24일에는 서울시의회를 찾았다.

안 의장은 각 의회 의장을 직접 만나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결의대회 참석을 정중히 요청했다.

범국민대책위와 세종특별자치시, 강준현·김종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결의대회에는 충청권 시·도지사와 국회의원, 시·도의장, 시민단체 등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 참석자들은 대회사와 연대사, 축사에 이어 공동결의문을 낭독하고, 손피켓을 든 퍼포먼스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.

안 의장은 수도권 광역의회 방문 자리에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위해서

는 수도권 3개 의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. 그는 "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충청권 발전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중대한 과제"라며 "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결의대회에 수도권 의회의 동참이 전국 시·도의회가 함께하는 힘을 대외에 알리는 상징이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안 의장은 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지지하는 선언문 서명에도 힘을 보태 줄 것을 각 의회에 요청하며,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.

한편, 안 의장은 지난 20일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고, 지난 달에도 충북, 대전, 전북 등 광역의회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대한민국시도 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전국 시·도의회 의장들과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에 뜻을 모은 바 있다.